

농정뉴스



夏穀收買값 12.5%인상

1가마(2등)당 2만 9천 7백원

8월말까지 5백만섬 수매계획

정부는 올해산 보리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12.5%올려 2등급기준 76.5kg들이 가마당 2만 9천 7백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1일부터 8월25일까지 5백만섬을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곡수매가격, 결정때 누적되는 양곡관리기금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산 하곡수매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었으나 지난해의 냉해피해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곡자급을 위해서는 보리증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 방침을 변경, 이같이 결정했다.

농수산부는 올해산 보리생산비는 80년의 2만3천2백26원보다 3천9백43원이 늘어난 2만7천1백69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며 올해 수매가

격은 이보다 2천5백31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부는 또 올해 보리생산량은 6백 41만섬 정도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5백만섬 범위안에서 수매할 경우 농민이 희망하는 양을 전량수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하곡수매가격은 별표와 같다.

◇ 올해 夏穀收買 價格

<租穀기준=원>

穀種	單量 (kg)	1등	2등	등외
보 리	50	13,800	13,020	10,670
쌀보리	60	18,760	17,870	15,010
밀	60	18,760	17,870	15,010

당면 영농대책 시달

병충해방제 물관리철저

농수산부는 오랜 가뭄끝에 해갈이 예상될것에 대비 당면영농대책을 시달했다.

농수산부는 2모작 논은 벼보리를 논두렁에서 건조하고 논을 속히 갈고 정지하여 모내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촉구하고 늦모내기를 하면 벼생육기간이 짧아 지므로 적기보다 배계심고 한 포기당 본수를 많게 할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부는 또 장마전선이 상륙하면 그동안 건조(乾土)효과로 연약해진 벼에 잎도열병은 물론 이화명충이 발생되거나 침수·태풍으로 흰빛잎마름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도열병, 이화명충 및 흰빛잎마름병약을 함께 섞어 공동방제하고 물에 잠길것에 대비,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하며 진흙물은 버는 속히 씻어 줄 것을 당부했다.

農災保險 87年 실시

벼농사부터 점차 확대

정부는 한해, 병해등 농작물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5차 5

개년 계획이 끝나는 87년부터 농업재해보험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짓고 우선 올해부터 도상(圖上)시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중 벼농사부터 실시키로 하고 올해에는 도상으로 시험사업을 벌인 후 내년에는 강원, 경남, 전남등 3개도에서 1개군씩을 선정 실제 시험사업을 벌릴 계획이다.

증산시상 계획 확정

한·수해 대책에 중점

농수산부는 쌀3천 8백만섬을 주축으로한 올해의 식량증산목표 5천 3백 23만 9천섬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의 증산시상금을 지난해보다 2.5배가 많은 10억원으로 결정하는 등 올해 식량증산시상계획을 확정했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식량증산 시상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시상은 ▲우수기관상 ▲우수기관 및 단체상 ▲다수확농가상 ▲증산 유공자상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와 달리 농가단위에서 부락단위까지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식량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한·수해등 각종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한 기관부터 우선하여 시상키로 했다.